

고대법학

2014 Spring, Vol. 5

발행일 2014년 4월 30일, 제5호 발행인 신영호 편집인 김인현 편집부 편집장 유지형(5기) 편집부 이윤석(4기), 황정원(5기), 양현주(5기), 조예진(5기), 금현경(5기), 이상호(6기), 김재희(6기)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제보 02-3290-2871 기획·편집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 02 LECTURE SUMMARY 명사초청 특강 VIA JURIS
- 04 INTERVIEW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06 INTERVIEW 박종수 조세법 센터 소장
- 08 SEASONS OF KU LAW 법무법인(유)울촌 5억 기부 약정
- 09 GRADUATE INTERVIEW 졸업생 인터뷰
- 10 INTERVIEW 해외 인턴 체험기
- 11 INFORMATION CLEC 센터 소개



명사초청
특강

정의를 위한 뜨거운 강연, VIA JURIS

‘법으로 가는 길, 법의 길’을 의미하는 ‘VIA JURIS’는 라틴어로 ‘정의를 위하여’라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조계 및 학계 등의 저명인사를 초빙한 강연 시리즈이다. 100년이 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법률가의 길에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법 및 법학에 대한 방향 설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명칭을 과거 법과대학의 입문 프로그램인 ‘VIA JURIS’로 정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유병화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인섭 법무법인(유)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김창석 대법관, 이진강 전 대한변협회장,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이 특강을 해주었고, 본지는 3호에서 지난해의 특강을 다루었다. 이어서 이번 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의 강연을 소개한다.

제1강 명예, 신의, 창의력을 갖춘 법조인이 되어라

2014년 3월 7일, VIA JURIS의 ‘첫 강의’는 오랫동안 고려대학교에 몸담아온 채이식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제자이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김인현 교수가 채 교수의 경력 소개를 담당하였기에 더욱 뜻깊은 순간이었다. 한국 변호사에서 영국 변호사 및 IMO 법률위원회 의장으로 이어지는 40여 년간의 법조 경력 소개가 끝나자, 채 교수는 까마득한 후배들의 환영 속에서 연단에 들어섰다.

현 법조계가 봉착한 문제들과 당면한 미래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보다도 자세와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법 실력 못지않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느 학교에 뒤지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현재 신법학관 엘리베이터 옆에 새겨진 “우리의 결의”라고 한다. 채 교수는 학생들이 매일 지나치는 길목에서 눈에 익었을 그 문구들을 큰 소리로 복창 시킨 후, 문구 하나하나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설명해나갔다.

불어 살아간다.

셋째,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며 창의적 정신으로 미래에 도전한다.

‘명예, 신의, 그리고 창의적 정신’이 법조인의 삶과 자세에서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화제에 오르는 법조계의 일련의 사건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누구나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덕목들이지만 그만큼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여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법조인이 되기는 쉽지 않다. 채이식 교수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이란 “우리의 결의”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고려대 법대 67학번이자 사법연수원 1기로서 대한민국 법조계의 선두에서 후배들을 이끌어온 채이식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 법조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이자 롤모델이다. 출신학부와 전공이 제각기 다른 로스쿨 신입생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르기 위해 전원 기숙사 입사를 추진했었다는 그의 열정을 본받아 강연을 들은 학생들 또한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신의를 지키며 창의적 정신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KL**

이상호,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우리의 결의

첫째, 우리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정의를 수호하고 공익을 우선한다.

둘째, 우리는 언제나 신의를 지키며 서로가 협력하여 더

채이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강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4년 3월 21일 VIA JURIS의 두 번째 강연은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사인 정우영 변호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정우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였다. 지난 4월 3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국내외 로펌 대표 10인이 뽑은 스카우트하고 싶은 변호사’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 부문에서 1순위로 뽑힌 바 있다. 강연은 변호사, 특히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서 살아남는 비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변호사로서의 성공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도움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과 “한 분야에 대한 집중”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 5인 중 1인으로서, 금융부문을 전담하고 있지만, 그 역시 원래는 법과대학을 졸업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전형적인 법조인이었다.

정 변호사는 생소했던 금융 분야에 익숙해지기 위해,

말 그대로 돈 속에 파묻혀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던 Project Financing을 들여오기 위해서, 일본까지 건너가 여러 서점을 주유하며 공부했다는 말이 특히 인상 깊다. 그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무한한 도전정신’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선박금융 구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이어가면서 ‘무한한 도전정신’을 다시금 강조했다. 90년대 이전 국내 해운 사업의 구조는 금융권을 통한 ‘고금리’ 대출을 통해 선박을 주문하는 게 기본이었다. 하지만 당시 해외 경쟁 업체들은 ‘저금리’였던 달러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극히 불리한 경쟁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국내 해운업에서도 저금리 달러 수요가 커가는 상황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포기하라는 조언

을 주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선박금융 구조를 계획하고 그것을 기업에 제시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자. 후자의 변호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게 당연하다. 시장이 스스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변호사가 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그의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강연 중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변호사는 서비스업이라는 기본적인 명제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 고객이 자연스레 물린다는 당연한 사실을 지키지 못해 많은 변호사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평생 “No”라고 해 본 적이 없다는 그의 긍정적인 성격은 훌륭한 법 실력만큼이나 변호사로서 가장 큰 장점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변호사 3명으로 시작했던 법무법인 광장의 금융부문이 현재는 87명의 변호사로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KL**

이상호 법학전문대학원 6기

제3강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길

노환균 법무법인(유) 태평양 고문 변호사



VIA JURIS 세 번째 강연은 2014년 4월 4일, 법무법인(유) 태평양 노환균 고문변호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노환균 고문변호사는 졸업한 뒤 실로 오랜만에 돌아온 교정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며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75학번인 그는 제 24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검찰에서의 25년을 보낸 뒤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 회장으로서는 3500여명의 교우들을 이끌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후배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 노환균 고문변호사는 크게 법조인의 길, 검사의 삶 그리고 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진지하면서도 흡입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먼저, “법조인이란 기준을 세우고 중심을 잡는 사람이다. 세종이 조선의 표준을 세웠듯이, 통일성과 정확성을 갖춘 잣대로서의 법을 도구로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실력, 명예 그리고 정성이라는 덕목을 필수적으로 갖추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고려대라는 울타리에 속하는 법조인이라면 법률전문가일뿐만 아니라 사회에 울림을 주는 지식인이자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말의 우국지사이자 시인이었던 매천 황현 선생이 남긴 절명시의 구절인 ‘難作人間識字人’, 즉 ‘참다운 지식인 되어 인간답기 어렵도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며 공부하라고 주문했다.

그 중 노환균 고문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바로 ‘정성’이었다. 그 또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젊음을 바친 공안검사로서 사는 삶을 살았기에, “법정에서의 사건들은, 우리에게만 일상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다. 따라서 법조인에게 배려와 경청은 필수 덕목이다.”라며 힘주어 강조하였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 일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매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자신을 낮추며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환균 고문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실력과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책임을 진다는 명예는 기본이고 그에 더하여 정성이 있어야 참된 법률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또한 ‘실력과 정성’이라는 문구를 가슴속에 간직할 것을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상비문의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가꾸어온 민족의 보람찬 대학이 있어’라는 첫 구절을 인용하며 노환균 고문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고대정신을 전하였다. 그는 소통과 단합, 그리고 배려와 겸손이라는 정신과,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고려대학교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일깨워 주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또한 이러한 고대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소리 속에

서 강의를 마친 후 노환균 고문변호사는 이어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3기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입사 예정인 손승현 변호사를 소개하였다.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연단 위에 올라선 그녀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하여야 하는 지를 전달하였다. KBS 라디오 PD의 경력을 거쳐 새내기 법조인이 된 손승현 변호사는 “내가 할 수 있고 사회가 원하는 ‘나만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스펙 채우기용이 아니라 나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의 양과 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며 진심과 열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꿈이 곧 나 자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접관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 젊음과 패기가 오롯이 전달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취직 문제에 대한 생생한 팁 또한 전해주었다.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선배로서의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의 가슴을 또 한 번 뛰게 해주었다.

실무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노련함이 묻어나는 귀중한 조언들을 해주었던 노환균 고문변호사와 당당한 자세와 여유로움이 아름다웠던 손승현 변호사의 이번 비아유리스 강연은 어떠한 법조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학생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KL**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학 부설 법학연구기관으로 현재 산하에 21개의 연구센터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본지는 법학연구원의 활동 및 성과를 시리즈 기사로 다루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법학연구원 전반과 법학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현황을 알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하태훈 교수를 만나보았다.

조예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법학연구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은 1960년 12월 고려대학교 부설 행정문제 연구소로 시작하여 1970년 5월 법률행정연구소로 발전하였고, 행정학도가 법과대학에서 분리됨에 따라 1982년 6월 법학연구소로 개편되었으며 1997년 1월 7일자로 규약 변경을 통해 고려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원으로 승격되어 현재 21개의 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로는 기초법 연구센터, 공법 연구센터, 민사법 연구센터, 형사법 연구센터, 상사법 연구센터, 해상법 연구센터, 국제법 연구센터,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 경제법 연구센터, 북한법 연구센터, 환경법 연구센터, 민사절차법 연구센터, 분쟁해결 연구센터, 혁신·경쟁·규제법 연구센터, 조세법 연구센터, 사이버법 연구센터, 회사법 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은 “고려법학”, “Korea University Law Review(이하 KULR)”, “The Asian Business Lawyer(이하 ABL)”과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학저널을 발행하고 있으며, 국내학술대회 개최 및 산하 연구센터의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원의 최근 사업현황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2013년 ICR 연구센터는 중국 인민대학교 법과대학교 경제법연구소와 한-중 시장규제법 센터(Korea-Chin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 이하 “MRLC”)를 설립하여 국제적인 공동연구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섭적인 연구활동과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통해 국내 및 동아시아 법제도 발전에 핵심적 구실을 하는 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해의 활동을 소개하자면 해상법 센터는 2월 개원기념 실무강좌 및 10월 제6차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을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법 센터의 개소 기념 학술연구발표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국제심포지엄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법학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영문저널인 ABL의 SCOPUS 등재신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BL 법률저널은 국제무역 법무에 관한 영문저널로서 2008년 5월 제1호 출간을 시작으로, 매년 2회 출간되었고, 현재 ABL 제13호 출간을 위해 원고모집 중에 있습니다. 영문 저널인 ABL은 국내와 국제, 특히 아시아 경제법무(economic judicial affairs)의 소개를 목적으로 주로 기업, 국제무역, 공정거래, 국제파산, 인수합병, 조세, 금융, 지적 재산권 등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ABL은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 지원 아래, 꾸준한 노력 끝에 West law에 등재된 법률저널이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법률저널이 되기 위하여 ExpressO(온라인 투고시스템)와 Hein Online, SCOPUS 등재 신청을 위해 윤리규정 추가와 출판사 교체검토 등 2014년 말까지 등재를 위한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의 에디터(editor) 등을 초청하여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자 기획 중입니다.

법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학술지 발행, 학술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경우는 국내외 우수 기업 및 로펌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기부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로 혁신·경쟁·규제 법 연구센터(Innovation Competition & Regulation Law Center, 이하 "ICR센터")는 쉐릴



사 및 국내로펌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이버법 연구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해상법센터는 선주협회 및 해상관련 로펌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발간되는 "고려법학" 및 각각 1년에 2번 발간되는 KULR과 ABL의 발간 비용 또한 국내 로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원이 향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법학연구원의 각 센터의 활동을 증진하고 학술지 발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국내 관련 법 학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첨단 법학연구를 이끄는 연구원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다하고, 세계적인 법학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KL**



교수 동정



유진희 교수, 감사원 감사위원 취임

2014년 1월, 경제법과 회사법을 강의하는 유진희 교수가 감사원의 감사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되었다. 4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유진희 교수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전문가로서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직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분야의 감사에 있어 종합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태훈 교수, 형사법학회회장 취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인 하태훈 교수가 형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되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1957년에 설립된 형사법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학회로 형사법 분야의 교수와 법조인, 공직자 등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은 1년의 임기 동안 정기적으로 4번 이상 학술행사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학술 행사는 단독으로 혹은 대법원의 형사법연구회,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외국 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열기도 하고, 경찰청이나 대검찰청과 같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하태훈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학회 고문들의 자전적 에세이를 '형사법 연구'학회지에 실어 논문 이외의 이면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발표기회를 확대하여 후학양성에 힘쓸 것' 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최영홍 교수, 유통법학회회장 취임

상법을 강의하는 최영홍 교수가 2013년 9월 창립된 한국유통법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여 2년간 학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한국유통법학회는 2014년 3월 28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유통법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윤남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재임명

민사소송법과 도산법을 강의하는 윤남근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근)으로 재임명되어 앞으로 3년간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다.



김인현 교수, 심당학술상 수상

상법과 해상법을 강의하고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및 학생부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인현 교수가 국제거래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제7회 심당(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품은 김인현 교수가 2013년 발간한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이다. 이 책은 영미법계 국가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한국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좋게 한국의 운송법이 영문화된 저서로, 관련 법률의 내용, 판례를 소개하고 비교법적 접근과 더불어 김인현 교수의 견해를 담고 있다. 김인현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률과 법원의 판결도 우수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국제해상 관련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법을 외국에 알리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 법학의 국제화 부분에 대한 헌신을 학문적 목표의 하나로 삼게 되었고 본서도 그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채이식 교수, 상법 해상보험편 개정위원장

상법을 강의하는 채이식 교수가 법무부 상법 개정(해상보험 편)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한국과 영국 2개국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이며, 유엔 전문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의 법률위원장, 현대상선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채이식 교수는 2007년 상법 해상 편 개정위원장으로 활동한바 있다.



신현탁 박사, 상법(회사법)교수로 초빙

2014년 3월 1일, 법무법인 중정의 파트너 변호사였던 신현탁 교수가 상법(회사법) 교수로 초빙되었다. 신현탁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으로서 미국 버클리대학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KL**

박종수 조세법 센터 소장

“이론과 실무의 협동 연구”

법학연구원 시리즈 기사의 시작으로 앞서 본 법학연구원의 전반과 더불어 소개할 첫 번째 산하 센터는 조세법 연구센터이다. 조세법연구센터는 기업 조세와 국제 조세와 관련한 주요 이슈와 이론 및 실무를 연계하여 협동연구를 함으로써 조세법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조세법 센터의 역할과 활동을 알기 위해 조세법 센터 소장으로 있는 박종수 교수를 만나보았다.

황정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현재 하고 계시는 활동을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내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조세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조세법연구회 학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외부에서는 방송통신과 조세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법포럼이라는 사단법인 활동과 정부 기관 관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두 부처를 상대로 연구용역을 하기도 하고, 법제정작업, 특히 ICT 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조세 분야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 두 부처를 상대로 활동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정부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조세의 비상임심판관과 일반 행정의 중앙심판위원회의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세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외부활동을 두루두루 하고 있는 편이고, 요즘은 세종시와 과천 청사를 오가느라 바쁘게 지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조세법연구센터를 소개해주세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조세법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내의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등 다양한 과정에서 세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연구회의 판례연구 등 학회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세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매년 미국, 중국 등 해외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하여 국제조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고, CJ 법학관 410호, 411호에 조세법센터 공간도 마련되어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구센터입니다.

작년 7월에는 CJ 법학관 베리타스 홀에서 <글로벌경제시대의 국제조세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제4회 국제조세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이 후원하고 Philip F. Postlewaite(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와 Asif Hasan Qureshi(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obert Browell(PricewaterhouseCoopers)가 발제자로 관련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 회계사, 변호사, 사무관 등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공동으로 증여세 활성화를 위한 세계개편방안의 학술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교내에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인 만큼, 고려대학교 내의 각종 과정에서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세미나에 참관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도 7, 8월경 제5회 국제 조세 콘퍼런스 개최를 예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주제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각종 세미나, 콘퍼런스 개최 등 학술적인 연구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세법 지식 연마에 도움을 주고, 주요 대형로펌과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현 조세법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정부기관 관련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나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세법 이론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실무 경험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점도 보람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도 크고 사건 금액이 고액인 경우도 많아서 학생들도 앞으로 조세법 영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업무는 행정 소송 전의 전심 절차로 일반행정법 이론이 실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과거보다 행정심판을 통한 사건 처리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로펌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허가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 활동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크게 변화하면서 금융당국이 하는 여러 가지 행정작용이 중요해졌습니다.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그 심사 과정에서 금융 실물의 운용과 시장형성 과정을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됩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훗날 학생들이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비교우위를 가지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러 역할에 진출하여 학생들을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이 닿는 한, 나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제자들과 학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자 고대인으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소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특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특기가 될 수 있는 특별 분야가 바로 행정법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고, 기본적인 행정법 공부로 그 소양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전문인증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이수체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련 과목들을 수강한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훗날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졸업 후 일반 로펌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공공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변호사로서의 좋은 경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거대' 영역인 행정법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높은 이상과 진취성을 가지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이라는 길다란 길고 짧은 과정 동안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길 바랍니다. 학교 내에서의 경쟁, 학점 관리 등에 치우치기보다는 자신만의 목표로 삼아서 노력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탐색의 과정이 필요한데, 진취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목표를 탐색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온갖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KL**



학생 칼럼

감정의 개념

이윤석 법학전문대학원 4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혹시 아양과 아부, 아침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는 물음에 정확히 말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서 지극히 법학도적인 답을 한다면 아양과 아부, 아침의 차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죄와 같다. 설명인즉슨 이렇다. 모욕죄는 특별한 사실의 적시나 그에 기초할 필요 없이, 욕이나 폭언 등 단순한 가치판단만으로 성립한다. 아양도 이와 같아서 "교수님께서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등, 그저 가치판단에 불과한 말을 속삭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부는 다르다. "이번 세미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등, 그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제시될 때에야 비로소 성립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부는 명예훼손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아침은, 심지어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이다. "이번 세미나가 성공한 것은 모두 교수님 덕분입니다"와 같이, 이러한 성질은 한편 허위사실의 명예훼손과 닮았다. 그래서 행위범까지 측면에서 아침이 가장 크고, 그보다는 아부가 조금 더 적고, 그다음으로는 아양이 가장 적은 형태를 띠게 된다. '법학도'란 이처럼 모든 것을 개념 짓고 또 규정짓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말조차 걸 수 없었고 소매 끝에만 달아도 떨리는 그런 감정들. 부엌과 아른아른하지만 분명한 마음들.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모를망정, 우리가 또렷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고민. 불확정성의 원판 위에 사슬 묶인 미래.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사실 기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쉽사리 그 마음에 이름을 붙여버렸다.

당신의 그 사람은 한 명뿐인데, 당신의 고민은 당신만의 것인데, 색색의 한숨으로 잠 못 드는 밤은 셀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만 너무나도 성급하게 그런 마음들을 재단하여 버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실물리 개념 지어버린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도 이름 붙임 하고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그렇게 깎아 먹으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설명해주는 것도, 설명되어있는 것도 참 좋아한다. 그리고 그걸 다 알아들었고, 그것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되어버린 감정들, 그 정의를 강요하는 말들, 경박한 말은 몇 번 들어도 불안할 뿐인 것을 우리는 애써 감추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둠은 한번 드리기 시작하자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 어느새 밝은 꽤 캄캄해져 있었다.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기분들이 내 마음 속을 채워나갔다. 그리움, 미움, 두려움, 허무함. 구분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들이.

생각의 바삭거림이라던가 날선 문장들이 사사롭고 소소하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달빛은 되지 못해도 달빛 부스러기 정도는 되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토록 달빛 냄새도 나지 않게 몽롱해져 버린 걸까.

그렇게 상처받은 감정의 조각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밤이다. 아니 위로받고 싶은 건 나 일지도 모른다. 한마디가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을테니까. 살아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씹고 곱씹을수록 점점 진해지고 뚜렷해지는 단어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풍경과 소리, 냄새들. 너무나 곱고 예쁘고 외로워 마음속으로만 몇 번이고 되뇌어 보는 말들로 상처받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본다. **KL**

(유)법무법인 율촌 5억 기부약정



2014년 2월 12일 고려대학교 본관 총장실에서 법무법인(유) 율촌의 기부 약정식이 열렸다. 율촌은 매년 1억 원씩 5년간 5억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번 기부의 중심이 된 박해식 변호사를 만나 그 계기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현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은 1997년 설립 이래 단 한 번의 M&A도 없이 꾸준히 성장해온 법인으로서, '율촌'이라는 이름에서부터 각 분야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설립한 법인이다. 애초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각자 갖춘 능력의 일부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로펌의 사회적 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지식의 사회 환원, 나눔의 가치실현, 후진양성과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 기여 등이 대표적인 율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박해식 변호사 박해식 변호사는 서울 민사, 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율촌의 공정거래그룹 대표변호사로 공정거래사건을 총괄하는 한편 일반행정사건을 비롯한 규제 관련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표로 있는 공정거래그룹과 tax 그룹은 국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후배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KU 이번에 고려대학교와 맺은 5억 기부금 약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마음의 고향인 모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게 되어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하는바입니다. 후배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기부금은 저뿐만 아니라 율촌에서 고려대학교에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기부를 받아 일정 금액을 모금했고, 여기에 로펌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기부활동의 '매칭'을 받아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매칭프로그램'이란 쉽게 말해 구성원들이 일정금액을 모금하면 로펌이 같은 금액을 더해 함께 기부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KU 기부금을 약정하게 된 계기는?

흔히 영화에서 보면 변호사는 오로지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려질 뿐 공익을 위한다는 이미지는 약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로부터 변호사자격증을 얻고, 이러한 직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환원의 목적으로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나아가 물질적인 기부를 보탠다면, 꼭 필요한 곳에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율촌에서도 활발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재능기부와 더불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번 기부금 약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의 법조계

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KU 마지막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훌륭한 후배들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창조적 법조인이 되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에 맞게 각자의 학부 시절 전공들을 살려 법학 외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법학적 지식을 조직화, 체계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하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학생이란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법률지식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학생, 나아가 법률 시장에서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고려대학교가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이긴 하나 선배로서 마음이 무겁고, 저를 비롯한 많은 고대 출신 파트너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고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 고민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선배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랍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모두가 원하는 직역으로 진출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곳 율촌에서 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부금이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KL**

교우회 소식

'2014 고대법대인의 밤' 개최

2014년 2월 24일 법대 교우회는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4 고대법대인의 밤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비롯하여 600명에 달하는 교우가 모여 2013년도 활동을 돌아보고 2014년도 행사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이귀남 법과대학 교우회장은 "법대 교우회가 고대 법대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총 교우회의 발전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법대 교우회의 적극적인 교우회 활동을 당부했다. 현재 법무법인 (유)화우의 고문변호사인 박송하(법학 64) 교우가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을, 오창한(법학74), 김한철(행정74), 유진희(법학77), 조희진(법학81) 교우 등은 자랑스러운 영진교우로 선정돼 축하패를 받았다.



2014년 예정 행사

법대 교우회에서는 4월 12일, 고대법대교우산우회를 결성하여 창립산행을 시작한다. 앞으로 계속하여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정기산행을 할 계획이다. 고대법대인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제4회 법대 교우회 바둑대회 (09월 13일), 제2회 법대 교우회 등산대회 (10월 25일), 2015 고대법대인의 밤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더욱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KL**

정리_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학생지원센터 이전 및 개소



지난 3월 31일 신법학관 1층에 학생지원센터와 센터장실 및 학생상담실이 문을 열었다. 학생지원센터는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와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지도하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습 과정에 적응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강신청지도 및 학습방법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된 학생지도센터와 학생상담실의 개소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생지도가 기대된다.

학생회실 이전



2014년 4월 1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실이 법학관 구관에서 CJ법학관 303호로 자리를 옮겼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누구나 학생증을 이용해 입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달 14일에는 변호사시험과 검찰, 재판연구원 등을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자료실이 기존의 신법학관 513호에서 학생회실로 이전하였다. 자료들이 학생회실로 이전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KL

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학교소식

QS평가에서 법학분야 51~100위권에 올라

고려대학교는 영국 세계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2014 세계대학평가 전공분야별 평가'에서 30개 평가 대상 분야 중 17개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 내 진입했다. QS에서 실시하는 Subject Rankings 평가는 30여 개의 광범위한 전공분야를 평가하는 유일한 세계대학평가로, 논문당 피인용수와 H-index, 연구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를 토대로 각 전공분야의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평가한다. 지난해 100위권 진입전공분야는 15개였으며, 올해는 Sociology(사회학), Computer Science & Infosystems(컴퓨터공학, 정보시스템) 등 2개 분야에 추가로 진입했다. 이는 8개 전공분야가 100위권으로 평가되었던 2012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성과이며, 본교의 학문적 역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7개 분야 100위권 내 진입은 국내 사립대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로, 다른 국내 대학들과 달리 인문계열 9개 분야, 자연계열 8개 분야 등 계열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법학분야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51~100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대학 중 고려대와 서울대(51~100위권), 연세대(100~151위권)가 200위권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분야에서 국내 대학 중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법 학	
1	하버드대(미)
2	옥스퍼드대(영)
3	케임브리지대(영)
4	에일대(미)
5	뉴욕대(미)
51 ~ 100	고려대
	서울대
101 ~ 150	연세대

졸업식과 입학식

2014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고, 이어서 2월 2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6기 학생들의 입학식이 열렸다. 졸업과 입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법학도로서 새 출발을 한 학생들의 모습을 담았다. KL

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졸업생 인터뷰



KU 졸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황은?

바쁘게 살았습니다. 졸업식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분주하게 지냈고 어디서 누구와 뭘 하든 열심히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 SK해운 보험법무팀에 취직되어 시험을 마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간 일한 후 겁 없이 개업했고, '운 좋게도' 좋은 성과를 내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재계, 정계, 체육계, 심지어 연예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만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건 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일을 하나 더 벌였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멋진 분들과 함께 법무법인을 만드는 중입니다. 좋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KU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고대를 선택했다기보다, 고대가 저를 선택해 준 겁니다. 사실 학부 생활을 고대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맛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 보니 익숙한 곳이 더 좋을 것 같아 10년만에 다시 고대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대" 출신으로서 받아왔던 수많은 혜택을 계속 누리고 싶었습니다.

KU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나 에피소드는?

김인현 부원장님의 해상법 수업이 기억납니다. 특히나 친한 동료들이 많은 수업이었는데, 인천항에 가서 화물선 승선도 해보고, 도선 시험회를 방문한 후 차이나타운에서 흥겨운 막걸리 파티를 했습니다. 수업 외에도 중앙도서관에서 아무 소설책이나 꺼내 읽고 다른 단과대학 문화행사에도 참여하면서 학생으로서의 특권을 누렸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리웁니다.

KU 최근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주요 활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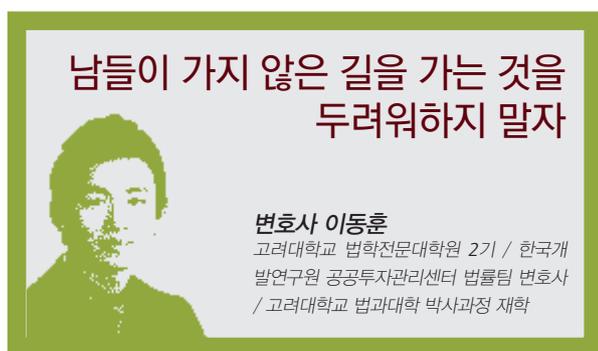
제가 수임해서 진행하던 사건이 KBS <추적 60분>에 방송되었습니다.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로 전 재산을 잃은 가맹점 사업자의 억

울한 사연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인터뷰했던 PD가 얼마 후 <의뢰인 K>라는 법률정보 프로그램으로 옮기면서 저를 추천하였고, 그 후 시사, 교양, 예능 심지어 아침방송 섭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험의 폭을 넓힐 좋은 기회이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흔한 일이 아니므로, 출연 요청이 들어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KU 인생의 좌우명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전하라. 계속 만들어라. 서로 돕자.' 이제 여러분도 곧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변호사가 될 테지요. 사내변호사, 고용 변호사, 개업변호사, 공직 등 저마다 위치는 다르겠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험한 전쟁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큰 '우군'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을 핑계 삼아 정작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수업들을 피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만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KL**

황정원 법학전문대학원 5기



KU 현재 하고있는 일은?

저는 졸업 이후 2013년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법률팀의 변호사(직급 연구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KU KDI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행정 등 공공부문 등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고, 공공부문은 법률가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살피를 수 있고, 관련 제도 전반을 넓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곳입니다.

둘째, 전문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지원, 평가, 관리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경제, 법률, 회계, 행정, 국제 등 전문

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실무와 학문의 경계에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학문에 의해 정립되는 이론적 배경'이라는 실무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고, 동시에 실무에의 적용을 전제하지 않고는 학문의 의미가 많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KU KDI PIMAC 법률팀의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는 KDI 부설기관입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이란 기존에는 정부재정사업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투자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PIMAC의 변호사들은 타당성 분석검토, 적격성 조사 등의 평가 업무뿐만 아니라 실시협약의 체결,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자문 등의 해석 및 법제 정비에 관한 자문, 표준실시협약 및 각종 세부요령의 작성,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U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님들께 조언을 해준다면?

성적은 역량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잘하는 것은 우선 '남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둘째로 해당 분야가 어디든 공통으로 요구하는 역량을 잘 준비하되, 셋째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특히 중시하는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취업에서 요구되는 것은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단순한 성적과 같은 역량 외에도 (1)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 (2) 업무연관분야에 대한 전문성, (3) 금전적 보상 이외의 보상에 대한 만족성향, (4) 친(용)화력, (5) 원칙주의(청렴성 등) 성향 등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KU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不爲也, 非不能也(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 맹자

끝으로 저는 후배님들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2년 차로서 배울 것이 많은 변호사에 불과하지만, 원래 시장이란 그러하듯 법률 시장도 장밋빛이지만도 않고, 어둡지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법률시장은 넓고,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법률시장의 단편으로만 자신의 미래를 제한하기보다, 미래의 법률시장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L**

황정원 법학전문대학원 5기



해외 인턴 체험기 정리_양현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변호사로서의 역량 강화, 자신감 확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김진하

인턴 지원동기 및 실습기관 개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해상법, 선박충돌법을 수강하였고, 2학년 여름방학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범무법인 세경'에서 실무수습을 하였습니다. 아시아 해상분쟁해결 및 중재의 중심지인 싱가포르 법률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2학년 2학기 중반 김인현 교수님의 권유에 따라 소속 변호사만 300명이 넘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로펌인 Allen&Gledhill 인턴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Who's Who Legal 100'(2013년 판)에서는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활동내용

실습기간은 2014. 2. 3.부터 2014. 2. 14.까지로 2주였습니다. Litigation, Arbitration, Maritime Law를 주요 업무로 하는 Litigation&Dispute Resolution 부서에 배정이 되었는데 Allen&Gledhill(A&G)에는 이미 싱가포르국립대학(NUS) 학생들을 비

롯하여 덴마크, 호주 등 각국에서 온 인턴들이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인턴활동 중 총 세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우선, Security for costs issue에 대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Internal Memorandum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Termination of contract(Arbitration) 이슈에 대하여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송전략을 세워야 할지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선박 충돌 사건에서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하여 'Loss of hire'가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실무수습 결과 및 소감

1) 해상&중재 영역의 발전 가능성·역량 강화 필요성 확인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상·중재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문 법률가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싱가포르 법률시장의 강점, 경제사회문화 이해 제고

짧은 기간이나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해보니 실제로 싱가포르라는 매우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의 국제공향에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았던 싱가포르 앞바다를 뒤덮은 선박들은 싱가포르 법률시장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눈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3) 변호사로서의 역량 강화·국제 감각 배양, 자신감 확충의 계기

우선, 해외인턴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의 장벽이 높지 않게 느껴졌고 업무에도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인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옴으로써 얻은 자신감 역시 장차 법조인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제 역할을 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수준 높은 법학 교육과 더불어 법원, 검찰, 로펌 그리고 해외 실무수습의 기회까지 제공해주으로써 도전하는 삶을 가능케 해준 모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자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L

목표 설정과 다양한 업무수행 능력의 배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백나라

인턴 지원 동기

법학전문대학원에 몸담은 학생들은 자신이 애초 입학할 때 원하였던 진로를 실제로 모색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또한 대부분의 동기가 학업에 열중할 방학기간 동안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국제기구 인턴십을 계획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턴 지원 및 선발 과정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획득하기 위하여 우선 석사과정에 등록되어있는 학생이어야 하며, 인턴십 수행기간 장학금이나 펠로우십 등이 보장된 경우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를 받은 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국제전문여성인턴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인턴십 수행 기간 동안 체재비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서류심사, 번역시험 및 면

접 등을 거쳐 선발하는 국제전문여성인턴은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원 교수님과 대사님 등 훌륭하신 저명인사로부터 2주간 질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이후 국제기구 인턴십은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획득하게 됩니다. 저는 이력서, 법에 관련된 에세이 등의 서류심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국제노동기구의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Adviser)에서의 인턴십을 획득하였고,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 내의 조직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인턴십의 경우 서류심사만을 통해 2014년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관 및 인턴활동 소개

국제노동기구의 법률자문실은 국제노동기구의 법적 이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법률 자문 및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권고를 준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5명의 Legal Officer, Deputy Legal Adviser(법률부고문)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요한 과제로는 국제공무원법에 관련된 최신판례를 불어로 업데이트하거나, 국제노동협약의 1986년과 1997년 개정안을 채택한 국가들에 관한 업데이트, 국제노동회의의 Standing Orders Commentary 조항의 연원, 개정이유 등에 관한 리서치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흥미로웠던 업무 중 하나는 법률부고문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 간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노동기준(Labor Standards)의 내용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통일된 노동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의 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 매커니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실제 인턴으로서 경험한 업무는 국제인권법의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에 얽혀있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기회였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개인 진정절차를 통해 접수된 개인 진정사건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하거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자문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의 진행 보조, 회의록 속기 및 보고서 작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각종 행사 참관 등이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소감

제가 수행하였던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인턴십은 조직뿐 아니라 업무의 성격도 서로 판이하여 어떠한 업무가 제 적성에 더 잘 맞는지 등을 비교 분석할 기회이기도 하였고, 목표를 공고히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으며 법조인을 꿈꾸는 동료 인턴들과의 의견 공유나 교류, 친목 등을 통하여 많이 성장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구의 매커니즘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으로 인턴십 기간 동안 열심히 업무에 임하였던 만큼 많은 보람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부에 일하면서 아시아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국제기구에 몸담은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는데, 점점 한국의 법조계가 다원화되는 만큼 국제기구에서 능력을 펼칠 국내 법조인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KL

CLEC 신설클리닉 소개

형사, 북한 인권, 법제, 특허, 조세, 공정거래, 해상보험 등 총 7개의 클리닉 신설

공익법률 상담소 CLEC는 로스쿨이 석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없다는 점, 향후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전문적인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분야의 담당 교수와 실무자들이 함께 법학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클리닉을 신설하였다. 새롭게 설립된 CLEC의 각 클리닉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형사클리닉(지도교수: 강수진 교수)**은 '기본클리닉'의 하나로, 신입생들의 경우 클리닉 활동을 통해 형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 3학년의 경우 검찰 등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서울 고등·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습을 하여 형사변호의 실무를 학습하고, 공익법률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습을 지도할 국선전담변호사는 서울 고등·중앙지방법원소속 국선전담변호사 24명으로, 국선전담변호사 1인당 1~2명의 학생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 인권 클리닉(지도교수: 윤남근 교수)은 북한 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문제의 법적·제도적 해결을 모색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남한 사회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며, 또한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생활법률교육을 하는 활동을 통해 그들의 남한 사회 정

착을 돕고자 한다.

법제클리닉(지도교수: 정영환 교수)은 법률 제정 및 입법지원활동을 통하여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자문위원으로서 법제처 김대희 국장, 국회 진정구 전문수석위원, 법무법인 광장 홍승진(미국)변호사, 조정찬 법제연구원장님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다. 법제클리닉은 학생들에게 법제분과에 대한 정보 및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이 분야로 로스쿨 학생들이 많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허 클리닉(지도교수: 안효질 교수)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등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진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클리닉이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을 포함하여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5명의 외부자문위원들이 특허클리닉을 도와주고 있다.

조세 클리닉(지도교수: 박종수 교수)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의 조세 불복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법률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되었고, 조세심판원 행정절차에 참여하고 국세청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법률상담을 통해 조세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조세심판원 및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세심판, 행정소송 지원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공정거래클리닉(지도교수: 강수진 교수)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로부터 시장의 공정하게 자유로운 경쟁거래 질서를 보호 및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시정을 촉구하고 소비자의 주권 실현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공정약관 등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하여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거래 사건 검토 및 법률 자문도 기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클리닉(지도교수: 김인현 교수)**은 해상보험법에 특화된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장 출신인 지도교수를 필두로 법학전문대학원 1~2학년 10여 명이 함께 해상법 판례 연구, 의견서 작성, 인천항 방문, 해상전문로펌 방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되고, 국내외의 해상전문로펌에서 실무수습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선진 중인 우리나라의 해운·조선산업에 발맞추어 해상법도 더 발전하여 증가하는 국제해상법률분쟁의 해결에 외국법이 아닌 우리나라의 해상법이 적용되는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은 클리닉의 분화는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길러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도 부응한다. 또한, 위의 일곱 개의 클리닉들은 '전문클리닉'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새롭게 설립된 클리닉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해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KL**

양원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6대 학생회 퇴임사

사랑하는 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제 6대 학생회장

제6대 학생회장 4기 이상돈입니다. 지난 3월 31 일부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학생회장 임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생활을 반추하며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언제나 따뜻한 애정을 쏟아주시신 신영호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밤낮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일을 큰 문제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 중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정승환·이주원·김인현 학생부원장님과 안효질·박지순 교무부원장님께도 못다 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학사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금철 학사지원부장님 이하 학사지원부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지지해 주셨던 교수 여러분들 덕에 저는 단 한순간도 외롭거나 힘들

지 않았습니. 응원해주신 교수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한쪽에서 헌신해주신 제6대 학생회 부학생회장 4기 박상환·5기 박정은 교수와 집행부 국장님들(이진규, 양경희, 김민기, 김영경, 이혜림, 조미정, 엄선희, 서채완, 김용석, 추세정, 진혜인, 양현주, 박상인, 이수진, 정진석, 김인기, 김지혜, 임재영, 박성준, 윤석빈, 김민욱, 홍석현, 손주현, 송인혁, 서승아, 김노은, 양인혜, 나성윤, 정연정,박영웅)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 제6대 학생회 또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새 일꾼으로서 힘찬 미래를 그려나갈 제7대 학생회 '함께 우리, 인(人)'의 학생회장 5기 서채완, 부학생회장 5기 유영준 · 6기 정지영 교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학교와 교수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짐을 저주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교수 여러분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서 참으로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으며, 편안함을 삼가는 만큼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 중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졸업 후에 더욱 학교와 교수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여 차차 값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에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요즘 가슴에 진하게 남은 말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마주할 모든 사람이 저로 인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교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KL**